

# 심금을 울린 80년 5월, 한 소년의 이야기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기념 동구, '소년이 온다' 낭독회 서울·순천·화순 등 40여 명 "인문 정신 지켜나가겠다"

광주 동구를 대표하는 인문 거점 공간인 동구 인문학당에서 울려 퍼진 '80년 5월, 한 소년의 이야기'가 참여자들의 심금을 울리게 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진행된 '소년이 온다' 시민 낭독회를 통해서다.

이날 낭독회는 시민과 독서공동체 등 40여 명의 참여자들이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를 소리내어 읽으며 주인공 '동호'를 비롯해 5·18 당시 고통받았던 인물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낭독자들은 이와 함께 한강 작가가 말한 삶과 죽음, 폭력과 사랑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참여자들은 광주는 물론 서울, 순천, 화순 등 타 지역에서 방문한 이들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낭독하며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낭독회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스웨덴에서 열린 '제124회 노벨문학상 시상식'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특히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함께 낭독하며 비극적인 사건 속 인간의 존재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광주 동구, 80년 오월의 소년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낭독회는 연극인 지정남 씨의 사회로 시작했다. 출판사 창비에서 이번 낭독회를 위해 보내준 영상 상영과 함께 한강 작가의 강연 영상 상영, 시민 낭독자 27명의 낭독, 꽃님이 이현미 가수의 '오월과 한강의 노래'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함께 한 시민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의 문장들을 진심을 담아 낭독하고 5·18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에서 참여한 안종빈 씨는 "동구에



광주 동구가 지난 10일 오후 동구 인문학당에서 '소년이 온다' 시민 낭독회'를 진행했다. **광주 동구 제공**

서 개최하는 낭독회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접수를 했다"면서 "나와 우리의 소년의 시간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낭독회를 계기로 '소년이 온다' 소설을 다시 한번 정독

하게 됐다"면서 "소년의 아픔과 그리움, 양심에 대한 고통 등 모든 것들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하며, 종결되지 않는 애도의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는 인문의 정신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서구,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치평동·금호동·동천동 총 4곳

광주 서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권 4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서구는 지난 10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구는 △치평동 시청음식문화의거리 △치평동 해광한신상가번영회 △금호동 화개상인회 △동천동상인회 등 총 4개 구역 359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1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을 하나의 상점가로 지정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이번에 지정된 점포는 은누리상권권가맹점 등록과 골목형상점가 대상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얻어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구는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구는 앞으로도 20여개 추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목표로 상권 발굴에 속도를 낸다. 유촌, 금호, 상촌, 내방, 동천, 화정2, 풍암동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상권 분석 자료를 활용해 상인회 구성을 독려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상이 기자**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성과보고회 북구, 16일 참여후기 및 발전 논의

광주 북구는 오는 16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아트테리어(Art+Interior의 합성어) 지원사업은 지역 예술가와 소상공인이 협력해 간판과 메뉴판 등에 예술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2022년부터 북구가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지역 예술가 5명이 투입돼 미용실, 음식점, 사진관, 카페, 회원 등 14곳 사업장의 환경을 업체당 160만 원 범위에서 맞춤형으로 정비해 점포 디자인을 재탄생시켰다.

북구는 이번년도 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성과보고회를 마련했다.

북구 소재의 한 카페(금재로36번길 56)에서 열리는 성과보고회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성과 보고 △추진성과 보고 △참여자 소감 발표 △기념 촬영 등이 오전 10시부터 30여분간 진행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산구, 지사협 성과 공유회 개최 동 협의회 위원 등 300여명 참석

광주 광산구는 지난 10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사협)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광산구 지사협 대표·실무 협의체 위원, 21개 동 협의체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광산구 지사협의 이야기를 표현한 음악회,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마을공동체 사업 우수사례 발표, 올 한 해 발전취,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다.

광산구 지사협은 시민 삶과 밀접한 곳에서 활동하며 한해 6000명 이상의 돌봄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등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광산구와 선한기업100+ 원탁회의 등이 협업해 추진한 '1313 이웃살림'을 통해 사회적 고립·은둔 위험도가 높은 주민을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 공동체 관계 회복을 돕는 역할을 했다.

사회 변화와 경향에 맞춘 복지 혁신을 이끄는 활약도 돋보였다.

광산구 지사협은 8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교육, 공개 토론회(포럼) 등 16개 민·관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복지종사자,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광산구 지사협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광산구는 올해 '2024년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시범사업 우수상 수상',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최우수상', '제14회 2024년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복지혁신부분 최우수상' 등을 받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지사협 위원님들의 헌신, 선한기업100+ 원탁회의의 후원으로 광산구는 대한민국 복지를 선도하고 있다"며 "연대를 실천하고 상생을 실현하는 활동이 더 힘 있게 지속되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2개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 4개 자치구, 지역복지사업 평가서 우수 지자체 선정

서구 4개 분야서 수상 쾌거 남구 사회보장 부정수급 '우수' 북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 광산구 '최우수', '우수' 2관왕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인정 받으며 명실상부한 복지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역복지 사업 평가는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쳐 주민 복리를 증진한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전국 지자체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실시되는 평가다.

먼저 서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야 '대상'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 '최우수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우수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4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서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 활발히 운영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민관협력 모델로 성장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분야에서는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한 점이 주목받았다. 남구는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남구는 올해 투명한 복지재정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적정 관리에 나서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환수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공무원 39명으로 구성된 관리 전담반 4개조를 편성해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제3차 부정수급 신고 제도 홍보제도와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회복지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인 공로도 호평받았다.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에 '영구임대단지 돌봄 특화마을' 사례를 공모해 '대상'을 수상하며 포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북구의 공모사례는 돌봄 취약계층이 밀집된 영구 임대단지를 대상으로 지자체·LH·종합복지관·중독관리통합지원센

터·의료기관 등이 함께 단지별 '마을 돌봄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서비스까지 연계한 '촘촘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델'이라고 높이 평가됐다.

광산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2개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아 2관왕을 달성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광산구는 건강복지 기능 강화 모형을 실현하고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광산형 건강+복지 모형'을 구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광산형 돌봄 사업 확장 △지역맞춤형 고용협치 체계 운영을 비롯해 시민참여형 사회적대화를 통한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 등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추진한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았다.

광주·전남 지자체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광산구가 유일하다. **정상이 기자**